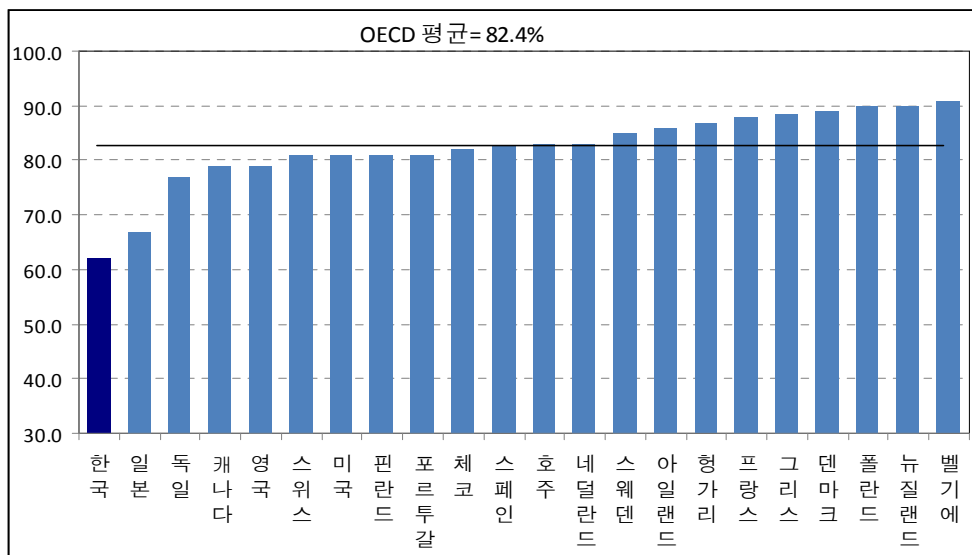


## 여성의 학력별 임금격차 국제비교

- OECD국가의 여성 전일제(full-time) 근로자의 상대임금(남성대비 여성의 임금비율, 중위임금)은 대부분 국가에서 남성보다 낮은 수준이며, OECD 평균은 여성임금이 남성임금의 82.4% 수준에 그침.
  - OECD 평균보다 높은 국가들은 벨기에, 뉴질랜드, 폴란드, 덴마크, 프랑스 등이며, 이 국가들의 여성임금은 남성임금에 근접한 수준임.
  - 반면, 한국은 OECD국가들 중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크며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60% 수준에 그치고 있음.
- 25~64세 여성근로자의 상대임금 수준을 학력별로 OECD국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고졸학력의 상대임금은 OECD 평균에 근접한 수준이지만, 대졸 이상과 중졸 이하의 학력수준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그림 1] OECD국가의 성별 임금격차(2006)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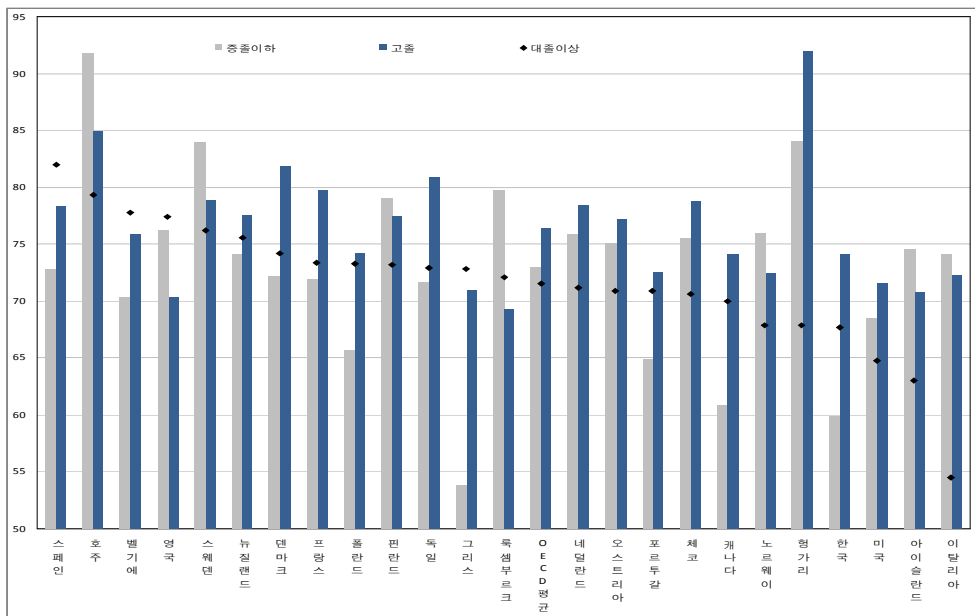
주: 벨기에, 포르투갈, 그리스는 2003년, 폴란드, 스웨덴은 2004년, 핀란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는 2005년 자료를 이용.

자료: OECD(2008), OECD Earnings Database.

- 국가별로 상대임금을 비교할 때는 국가별 노동시장의 훈련수준, 최저임금법, 노조의 역할, 단체교섭의 포괄수준, 비정규직의 사용정도에 따라 상이한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 깊은 해석이 필요함.
- 대부분의 국가에서 학력이 높아질수록 임금수준이 높아지지만, 학력별 여성의 상대임금 수준은 모든 학력수준에서 남성에 미치지 못함.
- 스페인, 호주, 벨기에, 영국, 스웨덴 등의 국가군은 고학력 여성근로자의 상대임금이 비교적 높은 국가에 속하는 반면, 한국, 미국, 이탈리아 등은 고학력 여성의 상대임금 수준이 남성의 70%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국가에 속함.
- 헝가리, 호주, 독일, 프랑스, 덴마크 등의 국가군은 고졸학력의 상대임금 수준이 높게 나타남. 한편, 고졸 수준의 학력은 대부분 다른 학력에 비해 상대임금 수준이 다소 높게 나타남.
- 중졸 이하 학력인 저학력 여성근로자의 상대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는 그리스(54%), 캐나다(61%), 한국(60%)으로 나타남.

[그림 2] 학력별 여성의 상대임금 수준 국제비교(2008)

(단위: %)



주: 1) 중졸 이하(Below upper secondary), 고졸(Upper secondary and post-secondary non-tertiary), 대졸 이상(Tertiary)으로 분류.

2) 호주는 2005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웨덴은 2006년, 캐나다, 핀란드, 한국, 노르웨이, 스페인은 2007년 자료임.

3) 전일제(full-time) 일자리의 연평균 소득을 기준.

자료: OECD(2010), *Education at a Glance 2010*(Table A7.3a, available at <http://dx.doi.org/10.1787/888932310206>).

- 2003년 이후 우리나라 여성의 학력별 상대임금 변화를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이용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 비교해 보면, 2010년 8월 여성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남성의 62.1%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2006년 이후 정체 및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음.
  - 이를 학력별로 살펴보면, 중졸 이하와 고졸의 저학력 여성근로자의 임금수준은 남성의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고졸은 65%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반면, 중졸 이하는 61% 수준으로 크게 하락했음.
  - 전문대졸의 경우 상대임금 수준이 남성의 70%를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2007년 이후 크게 하락했음.
  - 한편, 대졸 이상의 경우 2004년에 상대임금 수준이 남성의 74%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이후 꾸준히 하락하여 2010년에는 67.5% 수준에 그침.
  - 모든 학력에서 여성의 상대임금 수준이 낮아지고 있음. 이는 고학력 여성근로자의 비중확대에도 불구하고 시간제 근로의 증가, 비정규직화, 여전히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성차별 등에 의해 성별 임금격차가 완화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KLI**

<표 1> 학력별 여성의 상대임금(시간당 임금) 수준 추이

(단위: %)

	전체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2003	62.3	62.3	66.0	72.3	72.5
2004	64.6	66.6	67.8	73.9	74.0
2005	63.4	68.3	67.0	70.9	73.1
2006	64.2	67.7	66.7	72.8	71.6
2007	62.4	65.6	65.6	74.7	68.7
2008	63.4	61.6	66.8	71.5	70.6
2009	62.4	60.7	65.9	72.8	68.6
2010	62.1	61.1	65.9	70.8	67.5

주: 15세 이상 인구.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8월.

(정성미,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